

‘인문정신’ 담긴 옛글 통해 본 대한민국

이 외로운 사람들이

강명관 지음



‘시경’의 ‘영대’편에 실린 이야기. 유가에서 성인으로서 치는 주나라 문왕은 맛있는 동산을 하나 짓기로 한다. 높은 관대(영대)도 만들고, 넓은 연못도 파고 새와 사슴도 기르려 한다. 공사를 시작하자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 일을 돕는 자식처럼 비지땀을 쏟으며 일을 한다. 이 사람들이, 몸 다칠라, 쉬었다 좀 천천히 하소, 문왕이 말려보지만 사람들은 더욱 손을 재게 놀리고 며칠 안 가 동산이 완성된다.

왜 백성들이 왕의 동산을 만드는 데 이토록 열심이었던가? 그 동산은 이름이야 왕의 것이었지만, 백성들도 마음대로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백성, 곧 ‘서민’의 동산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문왕의 영대를 이용하고 즐

기는 서민인가, 아니면 정치가의 빈말에서만 존재하는 서민인가.

강명관 집문집 ‘이 외로운 사람들이’ 중 ‘뜻 모를 서민’이란 쪽지에 실린 글에서 저자는 말만 번지르하게 국민과 백성을 언급하는 요즘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서문에서 저자는 “모든 인간은 차별의 대상, 불평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지점부터 철저히 따져보고 궁리해 보는 게 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말한다.

‘조선의 뒷골목 풍경’,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등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펴낸 이번 집문집에 실린 글들은 ‘논어’, ‘다산 시문집’, ‘발해고’,

‘양반전’ 등 모두 옛글을 제재(題材)로 삼았다.

강 교수의 전작을 읽어본 이들은 알겠지만 그의 글은 과거의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유를 현재까지로 확장하는 힘이 있다. 특히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들에게까지 의미를 부여한다.

집문집에 실린 60여편의 글도 마찬가지다. 옛글에 담긴 이야기와 현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목시켜 풍성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가난으로 10년 동안 고생만 하다 결국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부부, 불평등한 세금 정책으로 고을 원에게 항의하다가 목숨을 잃은 백성들의 이야기는 ‘돈’ 걱정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요즘의 젊은 부부, 재개발로 살 곳을 잃고 쫓겨가는 사람 등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저자는 또 ‘순조실록’에 실린 다산의 유배 관련 글과 다산이 쓴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의 말미



강명관의 ‘이 외로운 사람들이’는 다산 정약용 등 선인들이 남긴 고전을 바탕으로 한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야기한다. 다산이 머물렀던 강진 다산초당. (광주일보 자료 사진)

에 적힌 ‘모쪼록 뽕나무 수백 그루 심으라고 당부했네’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어도 이를 이겨내려는 다산의 낙관주의, 현실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밖에 ‘노는 날을 늘리자는 조상님 말씀’, ‘다산이 생각하는 어린이의 공부 시간’, ‘운 백성의 양반

화와 모든 대학의 일류화’, ‘친구 아무개 목사에게 예수 믿기를 권함’ 등 흥미로운 글들이 많다.

특히 매 쪽지 말미에 맞춤 적어놓은 글이 참철 살인이다. 갈피갈피 정우혁 사진작가의 흑백 사진을 함께 실었다. (천년의 상상·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세계 인구의 0.2% 불과한 유대인 어떻게 지구촌 부와 권력 지배했나

홍익희의 유대인 경제사

홍익희 지음



유대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오늘날 세계의 부와 권력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사가 세계사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진 힘의 원천을 파악하는 것은 곧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해답을 얻는 열쇠를 얻는 것이다.

5000년 펄박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유대인의 경제사를 보여주는 ‘홍익희의 유대인 경제사’ 1, 2권이 출간됐다.

2013년 출간돼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던 ‘유대인 이야기’가 전 10권의 완전판 시리즈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1978년 KOTRA에 입사해 2010년 퇴직할때까지 32년간 수출전선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부딪치며 그들의 부와 권력을 목격했던 저자 홍익희는 1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원고로 ‘유대인 경제사’를 정리했으나, 지면의 한계상 대폭 정리된 단행본으로 ‘유대인 이야기’를 출간해야 했었다.

지난 2년간 저자는 그동안의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업그레이드 해 완전판 시리즈를 내놓게 됐다. 그 첫 걸음으로 ‘유대인 경제사 1권 : 세계 경제의 기원 고대 경제사 상’과 ‘유대인 경제사 2권 : 고난의 역사 고대 경제사 하’가 동시에 출간됐다.

이후 각 권이 격월로 출간돼 2016년 10월까지 총 10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시리즈는 ‘세계 경제의 기원’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첫 권을 시작한다. 인류 최초의 도시 예리코에서 시작된 문명에서부터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원한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 소개한다.

본격적인 펄박의 역사가 시작되는 ‘엑스터스’ 이야기에서는 유대 민족 전체가 겪게 되는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한스미디어·각 권 1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아세안 영웅들=우리가 몰랐던 세계사 속 작은 거인. 호찌민에서 리관유까지 우리에게도 유명한 인물들부터 중세, 근현대의 독립영웅들까지 아세안 국가들을 일으킨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세안의 근현대 영웅들은 식민지 정부로부터 민족을 독립시키려 했던 위인들이 많다. 그들은 주변국가와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도 식민 정권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며,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3000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돼라=화가이자 작가인 로드 주드킨스 교수의 책. 시대와 분야를 넘나들며 활약한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의 열정, 열망, 사교법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평범하게 살아 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책에 소개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는 완결



성보다는 생명력에, 고정관념보다는 변화 가능성에, 실용성보다는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데 마음을 열도록 돕는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별도 없는 한밤에=‘쇼쇼크 탈출’의 저자 이 후근 30년 만에 선보인 스티븐 킹의 세 번째 중편소설집. 네 편의 중편 소설로 구성된 책에서는 ‘음정’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섬뜩하고도 강렬하게 담아냈다. 2010년 출간돼 그해 아마존 올해의 책에 선정됐다. 2011년 영국 판타지 상 베스트 작품상과 수록된 단편 ‘1922’가 베스트



소설 상에 노미네이트 됐고, 수록작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영화 ‘굿 메리저’, ‘빅 드라마 이버’는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돼 화제를 모았다. <황금가지·1만5000원>

▲질문이 있는 교실=사람들은 언제 질문을 던지는가.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질문을 던진다. 질문이 왜 사랑이고 자유인지를 재미있게 펼쳐낸 책이 나왔다. 문제 의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질문이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질문을 잃어버린 교실이 질문을 되찾기 위해



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한결출판·1만7000원>

▲중국문화 산책=과거 중국의 역사와 문화부터, 현지에서 경험한 생생한 현재의 중국까지, 중국의 다양한 면모를 한자와 중국어를 통해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교양서. 키워드 한자를 중심으로 그 어원 및 중국어, 중국문화 등을 담고 있다. ‘기사로 보는 키워드’ 코너에서는 키워드 한자가 들어간 신문기사를 인용해 오늘의 중국과,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세계의 이모저모를 엿볼 수 있다. <한나래플러스·1만8000원>

▲세상의 모든 심리학=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의 말, 표정, 몸짓, 버릇 등에서 메시지를 읽어냄으로써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책. 사람은 언어로서 감정과 상황을 전달하지만 그 언어가 전부가 아닐 때가 많고 심지어 거짓말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목소리의 높낮이, 표정, 침묵을 지키는 순간의 행동들은 감정을 여실히 보여 준다. (스타북스·1만5000원)

어린이 책

▲내가 이상해?=미국 청소년 심리 상담사들이 추천하는 어린이 따돌림 예방 그림책 ‘참 이상하다’ 시리즈.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벌어지는 왕따 문제를 다루는 ‘내가 이상해?’, ‘내가 어떻게?’, ‘난 터프해!’ 세 권으로 구성됐다. 각 권은 피해자(루이자), 방관자(제일라), 가해자(샘)의 관점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키움·각 권 9500원>



물일 속 사자의 모습을 그려낸 그림책. 사자 썬더는 오늘도 가만히 누워만 있다. 고개를 문은 채 꿈쩍도 하지 않는 아프리카



사자, 썬더. 동물원에 홀로 누워 썬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동물원에 갇힌 사자의 모습과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독특한 그림으로 표현됐다. <리틀씨앤텍·1만원>

▲쉽고 재미있게 지도 읽는 법=다양한 지도를 소개하며 각각의 지도에 대한 설명이 사진과 그림 자료와 함께 수록돼 있다. 지도에 그려진 기호, 축척과 거리, 지도 속 좌표, 높이와 깊이, 위선과 경선 등은 물론 올바른 방향 찾는 법 등 지도를 읽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아 알려 준다. 지도에

관련된 활동들도 해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그린북·1만2500원>

▲미래 유망 직업 콘서트=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교사, 연예인, 공무원처럼 확실화된 목표를 좇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안내하는 책.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꼭 맞는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꿈결·1만3800원>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1기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채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